

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지사 사무실 이전

- 마포역 인근에 ‘건설근로자 쉼터’도 같이 문 열어 -

-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지사(이하 ‘공제회’)는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서울센터와 함께 사무실을 기존 중구 다동 국제빌딩에서 마포구 도화동 일진빌딩 3층으로 확장 이전하고 1월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.
- 새로운 사무실은 지하철 5호선 마포역 2번 출구에서 1분 거리에 있어 건설근로자가 찾아오기 쉽고 퇴직공제금·대부금 신청 등 민원업무, 복지서비스 신청, 취업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.
- 또한 공제회는 서울지사 이전과 함께 건설근로자가 동료들과 소통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인 ‘건설근로자 쉼터’를 새롭게 개설했다고 밝혔다.
- 건설근로자 쉼터는 방문근로자를 대상으로 휴게공간 및 간편식음료 제공, 건강관리 지원,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취업지원센터와 건설근로자 쉼터를 한 공간에 배치하여 쉼터 방문근로자가 손쉽게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.
- 공제회 관계자는 “서울지사 사무실 이전과 건설근로자 쉼터 신설을 계기로 건설근로자를 아끼고 섬기는 마음으로,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앞장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서울지사	책임자	지사장	이재금 (02-519-2200)
		담당자	과 장	이석순 (02-519-2201)